

대나무林的 收益性

李 興 均 / 林業研究院 과장

近來科學의 發達로 점차 竹材에 對한 認識과 利用이 低下되고 있지만 대나무는 過去부터 農用材, 水産用材, 竹細工用材로 竹筍은 食用으로 쓰이는 등 用途가 廣範圍하여 우리 人間生活과 매우 密接한 關係를 維持해 오면서 有形無形의 財貨로 그 價値가 높다고 하겠다.

한편 대나무는 一般 林木과는 달리 植栽後 일단 竹林이 造成되면 生長이 빨라서 每年 保續的으로 收穫할 수 있으므로 資金回收가 빠르고 적은 面積에서도 集約的인 管理를 할 수 있다는 經濟的 特性을 지니고 있어 南部地方의 農村所得源으로 適合한 經濟樹種으로 有望視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總竹林面積은 5,509ha로서 이의 大部分은 南部地方의 全南 및 慶南北 地域에 主로 分布하고 있는데 그 經營狀態가 粗放의 내지 放置狀態이어서 앞으로 舊態依然한 管理方式을 脫皮하고 科學的인 經營方式을 通하여 相當한 增産을 期待할 수 있으며, 한편 88年末 現在 國內에서 竹材를 24,731束, 竹筍을 1,326kg을 生産하고 있으나 2,781M/T, 金額으로 821千弗 相當을 外國에서 輸入하여 使用하고 있다.

따라서 外貨節約은 勿論 農家所得增大를 위하여 現在狀態를 基準으로 收益性을 分析하였다.

1. 收益性 諸元(用語)

- 分析基準年度: 1990年 4月 現在
- 收穫期: ha當 孟竹林 60年
- 粗收益: 收穫期까지 얻어진 竹材, 竹枝, 竹筍의 總價額
- 生産費: 收穫期까지 投入된 竹林造成, 管理, 採取 및 投入된 資材費와 勞賃, 地代의 總價額
- 經營費: 生産費中 自家勞力費와 地代를 뺀 總價額
- 所得: 粗收益에서 經營費를 뺀 總價額
- 純收益: 粗收益에서 生産費를 뺀 總價額
- 所得率: $(\text{所得} \div \text{粗收益}) \times 100$
- 純收益率: $(\text{純收益} \div \text{粗收益}) \times 100$
- B/C率(費用收益率): 粗收益/生産費(經營費)
- 内部投資收益率: B/C率이 1일때의 利子率로 收穫期까지 每年 얻어지는 平均收益率
- ※ 内部投資收益率을 生産費와 經營費 때로 區分하여 年平均收益率을 算出함.

2. 分析의 基準

- 竹材價格 4,000원/束, 竹筍 450원/kg, 竹枝 10,000원/t과 竹材價格 5,000원/束, 竹筍 500원/kg, 竹枝 10,000원/t의 2가지 境遇로 分析하였다.
- 竹材와 竹枝는 6年부터 竹筍은 7年부

터 生産하는 것으로 하였다.

- 肥料은 每年, 厩肥는 隔年으로 施肥하는 것으로 하고 10年마다 客土하는 것으로 하였다.
- 竹苗 7,000원 / 本, 肥料 238원 / kg, 堆肥 25원 / kg, 새끼 2,400원 / 卷, 農具費 75원 / 人, 人件費 男子 16,000원

/ 1人1日 女子 8,000원 / 1人1日로 策定하였다.

- 地代는 坪當 林地價 3,000원에 年 5%의 金額을 適用하였다.
- 利子率은 5%, 10%, 15%를 適用하였다.

3. 收益性分析 結果를 整理하여 表로 나타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竹材 4,000원 / 束, 竹筍 450원 / kg인 경우

單位：千원

利子率	租收益	經營費	生産費	所得	所得率	純收益	純收益率	費用收益率(B/C率)		年平均 收益率	
								經營費	生産費	經營費	生産費
%					%		%			%	%
0	125,254	39,865	91,523	38,389	68.2	33,731	26.9	3.14	1.37	10.0	4.1
5	31,024	17,244	33,666	13,780	44.4	-2,642	-8.5	1.80	0.92		
10	12,083	12,093	20,838	-10	-0.1	-8,755	-72.5	1.00	0.58		
15	5,949	10,044	15,968	4,095	-68.8	-10,019	-168.4	0.59	0.37		

(2) 竹材 5,000원 / 束, 竹筍 500원 / kg인 경우

單位：千원

利子率	租收益	經營費	生産費	所得	所得率	純收益	純收益率	費用收益率(BC率)		年平均 收益率	
								經營費	生産費	經營費	生産費
%					%		%			%	%
0	143,105	39,865	91,523	103,240	72.1	51,582	36.0	3.59	1.56	11.5	5.6
5	35,456	7,244	33,666	18,212	51.4	1,790	5.0	2.06	1.05		
10	13,813	12,093	20,838	1,720	12.4	-7,025	-50.9	1.14	0.66		
15	6,803	10,044	15,968	-3,241	-47.6	-9,165	-134.7	0.68	0.43		

4. 위에서 分析한 收益性結果를 볼때

過去보다 費用中 地價上昇에 따른 地代 畝이 커지고 勞賃의 上昇에 따라 生産費가 커짐에 따라 生産費로 따진 年平均收益率은 5%内外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自家勞力과 地代를 뺀 經營費로 計算한 結果, 年平均收益率은 두가지 경우 모두 10%以上이 되고 있다.

따라서 外國에서 輸入에 主로 依存해 오는 竹材의 自給을 위해서 이에對한 育成策이 必要하고 現在로서는 副業的인 性格의 農家の 竹林經營形態로 維持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대나무 多角的인 新用途開發이 이루어지고 經營의 合理化를 期하면 收益性을 크게 올릴수 있고 外貨도 節約할수 있다고 期待되어진다.